

# OE의 명사체제 및 OE의 형태 간소화에 관하여

李 京 植

(서울대학교)

이 글은 학자들의 의견과 주장들을 종합하여 OE의 명사체제(Noun System)를 요약하고 명사곡용(Noun Declension)의 간소화 과정 및 OE의 형태(Accidence)가 간소화된 원인들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 I. OE의 명사체제

OE에는 두 개의 수(단수, 복수), 네 개의 격(주격, 목적격, 소유격, 여격) 및 세 개의 성(남성, 여성, 중성)이 있다. 나전어에서와 같은 탈격(Ablative case)과 OE의 형용사에서 볼 수 있는 처격(Locative case) 혹은 조격(Instrumental case)은 여격과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또 호격(Vocative case)은 주격과 일치하는 관계로 따로 있을 필요가 없었다.

OE의 명사는 수, 격, 성에 따라서 매우 복잡하게 곡용되었다. Joseph Wright는 OE의 명사를 여섯가지의 곡용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즉 (1) 남성명사와 중성명사가 포함되는 *a*-declension, (2) 여성명사가 포함되는 *ō*-declension, (3) 남성, 여성, 중성명사가 다 포함되는 *i*-declension, (4) 남성명사와 여성명사를 포함하는 *u*-declension, (5) 남성, 여성 및 중성명사를 포함하는 *n*-declension 혹은 weak declension, (6) 본래부터 근간이 *-n* 이외의 자음으로 끝나는 남성, 여성, 중성명사들.

이상을 다시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2	3	4	5	6
Sing.						
N.	-, -e -u (-o)	-, -u (-o)	-, -e	-, -u (-o)	-a, -e	-, -u (-o)
A.	-, -e, -u (-o)	-e	-, -e	-, -u (-o)	-an, -e	-, -u (-o)
G.	-es	-e	-es, -e	-a	-an	-, -e, -es
D.	-e	-e	-e	-a	-an	-, -e
Plur.						
NA.	-as, -, -u (-o)	-a (-e)	-as, -e (-a) -u (-o)	-a	-an	-, -e, -as, -ru (-o)
G.	-a	-um	-a	-a	-en, -a	-a, ra

D. -um      -um      -um      -um      -um      -um, -rum<sup>1</sup>

Henry Sweet 는 Wright 와는 좀 달리, 세개의 큰 법주로 분류한다<sup>2</sup>. 즉 (1) 남성, 여성, 중성을 다 포함하는 weak 혹은 -n declension, (2) strong declension—이것은 성에 따라서 세가지로 세분된다. (3) minor declensions(주로 -u declension). 이것을 다시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Weak Declension

a) masculine

Sing.	Pl.
N. nam-a('name')	nam-an
A. nam-an	nam-an
G. nam-an	nam-ena
D. nam-an	nam-um

b) feminine

Sing.	Pl.	Sing.	Pl.
NA. ēag-e('eye')	ēag-an	sunne('sun')	sunne-an
G. ēag-an	ēag-ena	sunne-an	sunne-an
D. ēag-an	ēag-um	sunne-an	sunne-ena
		sunne-an	sunne-um

(2) Strong Declension

a) masculine

Sing.	Pl.
NA. stān('stone')	stān-an
G. stān-es	stān-a
D. stān-e	stān-um

b) neuter

Sing.	Pl.	Sing.	Pl.
scip('ship')	scip-u	hūs('house')	hūs <sup>3</sup>
scip-es	scip-u	hūs-es	hūs-a
scip-e	scip-um	hūs-e	hūs-um

c) feminine

Sing.	Pl.
N. ġief-u('gift')	ġief-a, -e
A. ġief-e	ġief-a, -e
G. ġief-e	ġief-a, -ena

(3) -u Declension

Sing.	Pl.	Sing.	Pl.
NA. sun-u('son')	sun-a	hand('hand')	hand-a
G. sun-a	sun-a	hand-a	hand-a
D. sun-a	sun-um	hand-a	hand-um

상기 어형변화표에서 우리는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모든 명사의 복수와 모든 중성명사 및 모든 강곡용 명사의 남성 명사의 단수에 있어서 주격과 목적격의 어미는 동일하다. 약곡용 명사에서 남성명사와 중성명사의 어미들은 단수 주격과 목적격의 어미들을 제외하면 서로 일치하고 있으며, 강곡용명사에서 남성명사와 중성명사의 어미는 복수 주격과 목적격의 어미를 제외하고는 또 서로 일치한다. 그리고 거의 모든 명사의 복수에 있어서 소유격은 -a 로, 여격은 -um 으로 끝나고 있다.

OE의 명사에 있어서는 grammatical gender 는 natural gender 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mægden*('maiden')와 *wif*('wife')등 자연성에 의하면 여성인 명사들이 문법성은 중성인

<sup>1</sup> Cf. *An Elementary Historical New English Grammar* (Humphrey Mil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24), p. 130.

<sup>2</sup> Cf. *Anglo-Saxon Primer* (Oxford At the Clarendon Press, 1957), pp. 9-14. E.E. Wardale 도 그의 *An Introduction to Middle English* (Routledge & Kegan Paul, Ltd., 1956, p. 72)에서 (1) a-class, (2) a-declension, (3) n-class 로 삼분하고 있다.

<sup>3</sup> Henry Bradley 는 그의 *The Making of English* (London, Macmillan & Co. Ltd., 1955, p. 24)에서 *hūs*의 복수가 *hūsu*가 아니고 *hūs*가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a final *u* always dropped off when it followed a heavy syllable, but remained after a light syllable." (p. 24.)

가 하면, *stān*('stone')과 *duru*('door')는 무생명인데도 문법성은 각각 남성과 여성이다.

이와 같이 문법성이 자연성과 다르므로 인해서 야기되는 혼란은 ME 후기에 이르러 정화되었으며, 그 후에 문법성은 자연성에 따라 결정되었다. gender의 간소화는 말할 것도 없이 영어가 일찌기 얻은 가장 행복한 이득의 하나였다.

## II. 굴절(Inflection)의 간소화

OE 후반부터는 스트레스가 없는(unaccented) 모든 굴절모음이 *-e*로 통일되는 경향이 있었고, 또 이것은 Norman Conquest에 의해서 촉진되었다. 이 경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명사의 경우인데, 격을 구별 짓던 어미들이 복수 주격과 목적격 및 Mod. E의 's의 전임자인 genitive 등 세개를 제외하고는 다 없어진 것이다. 다시말하면, OE 명사의 곡용어미 중에서 *-es*와 *-as*만이 적자생존 법칙에 의해서 살아 남은 것이다.

그 후 *-es*와 *-as*는 그 발음이 약하고 희미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양자의 차이가 없어지게 되었다. 결국 ME에서 *kinges*는 *king*의 genitive singular와 nominative plural을 나타내게 되었으며 그 후 얼마 있다가는 genitive plural까지 겸하게 되었다.<sup>4</sup>

OE 명사의 nominative plural이 밝아 내려온 내력을 Otto Jespersen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From the oldest period the ending *as* (later *es*, *s*) has been continually gaining ground, first among those masculines that belonged to other declensional classes, later on also in the other genders. The *an*-ending, which was common to a very great number of substances from the very beginning also showed great powers of expansion and at one time seemed as likely as (*e*)*s* to become the universal plural ending. But finally (*e*)*s* carried the day, probably because it was the most distinctive ending, and possibly under Scandinavian influence.... In the beginning of the modern period *eyen*, *shoon*, and *hosen*, *housen*, *peasen* still existed, but they were doomed to destruction, and now *oxen* is the only real plural in *n* surviving, for *children* as well as the biblical *kine* and *brethren* are two irregular to count as plurals made by the addition of *n*. The mutation plural has survived in some words whose signification causes the plural to occur more frequently than, or at least as frequently as, the singular: *geese*, *teeth*, *feet*, *mice*, *lice*, *men*, *women*. In all other words the analogy of the plurals in *s* was too strong for the old form to be preserved.<sup>5</sup>

OE 명사곡용의 간소화를 *muð*('mouth')의 경우를 들어 보살펴보면, 단수의 *muð*(N), *muðes*(G), *muðe*(D), *muð*(A)와 복수의 *muðas*(N), *muða*(G), *muðum*(D), *muðas*(A)등 여덟개의 본래의 형태가 *muð*, *muðes*, *muðe* 등 단 세 가지로 줄어 든 것이다.

<sup>4</sup> Cf. *ibid.*, pp. 38-43.

<sup>5</sup> *Growth & Structure of the English Language* (Basil Blackwell Oxford, 1958), pp. 174-5.

Dative ending *-e* 은 non-distinctive ending 이 되었고 genitive singular, nominative plural, accusative plural 의 *-s* 만이 distinctive noun-ending 이 된 것이다. 이것은 급속히 여타 명사에 퍼져서 1400 년대에 이르러서는 표준적인 명사복수어미가 되었다.<sup>6</sup>

Northern dialect 는 말할 것도 없고 Southern dialect 에서도 단・복수의 주격과 목적격은 형이 같았다. 그 이유는 명사를 수식하게 마련인 관사와 형용사가 굴절했기 때문에 목적격이 다른 형태의 어미를 가지지 않아도 주격과 구별되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특히 주격을 문두에 놓고 목적격을 동사 다음에 놓는 등 영어의 word-order 가 고정되면서 더욱 그렇게 되었다.

목적격이 굴절어미를 처분해 버린 시기는 ME 초기이며, OE 의 여격 어미 *-e* (단수)와 *-um* (복수)이 *-e* (혹은 *-en*)와 *-en* 으로 각각 된 것도 ME 때였다. 간접목적으로 사용되던 dative 가 소멸된 것은 훨씬 전의 일이었고 다만 전치사의 지배를 받던 dative 는 14 세기까지 그 어미를 간직했다. *on live* 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이것은 Mod. E 에서는 'alive' 로 축소되었다. 주격 *lif* (Mod. E. *life*)의 여격이 *life*인데 'live' 로 된 것은 모음 사이의 *f* 음은 OE 에서 음가가 [v]였기 때문이다.<sup>7</sup>

한 때는 수, 격, 흔히 는 성까지 구별 지어주던 명사곡용어미들이 희미하고 모호하게 발음되면서부터 그 소용은 점차로 감소되었다. 이것은 형용사와 동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glad* 는 OE 에서는 원래 *glæd*, *glædre*, *gældra*, *gladu*, *glades*, *gladum*, *glade*, *gladena*, *glada*, *gladan* 등 열한 개의 굴절형을 지녔으며, *good* 도 OE 에서는 *gōda*, *gōdan*, *gōde*, *gōdra* (or, *gōdena*), *gōdum* 등 다섯 형태였다. 독일어에는 *gut*, *guter*, *gute*, *gutes*, *gutem*, *guten* 등 여섯 형태를 아직 간직하고 있다.

이상을 요약해서 말하면, OE 에서 ME 로 거치는 과정에서 final *-m* 은 *-n* 이 되었다가 아주 멀어져 나갔으며, 모든 final vowels 는 *-e* 로 약화되었다가 종국에는 살아져 버리던가 발음이 안 되던가 해 버렸다. 형용사가 굴절하지 않는 단어가 된것은 ME 말엽이었다. Baugh 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The earliest seems to have been the change of final *-m* to *-n* wherever it occurred, i.e., in the dative plural of nouns and adjectives and in the dative singular (masculine and neuter) of adjectives when inflected according to the strong declension.... Thus *mūðum* (to the mouths) > *mūðun*, *gōdum* > *gōdun*. This *-n* along with the *-n* of the other inflectional endings was then dropped (*mūðu*, *gōdu*). At the same time, the vowels *a, o, u, e* in inflectional endings were obscured to a sound, the so-called 'indeterminate vowel', which came to be written *e* (less often *i, y, u*, depending on place and date). As a result, a number of originally distinct

<sup>6</sup> Cf. Albert C. Baugh, *A History of the English Language* (1956), pp. 195-6.

<sup>7</sup> Cf. Henry Bradley, *op. cit.*, pp. 45-6.

endings such as *-a*, *-u*, *-e*, *-an*, *-un* were reduced generally to a uniform *-e*, and such grammatical distinctions as they formerly expressed were no longer conveyed.<sup>8</sup>

Final *-e*의 소멸은 남부지방에서 보다 북부지방에서 먼저 일어났고, accented words에서 보다는 unaccented words에서 더 일찍 final *-e*의 발음이 나지 않았다. Joseph Wright는 final *-e*의 소멸을 이렇게 설명한다.

The final *-e* disappeared or rather ceased to be pronounced earlier in dissyllabic forms with a short stem-syllable than in those with a long stem-syllable, as in *bite* (OE. *bite*) *bite*, *bit*, *sunę*, *sonę* (OE. *sunu*), beside *nēdle*, *nēdle*, *tide*. In both categories of words the *-e* continued to be written long after it had ceased to be pronounced. In ME. the *-e* in dissyllabic forms with a short stem-syllable was generally omitted in writing, as in *bit*, *son*, but in dissyllabic forms with a long stem-syllable it was generally retained in writing to indicate that the preceding vowel was long.<sup>9</sup>

굴절이 거이 없어지자 전치사의 용법과 문법적인 관계를 표시해 주는 새로운 수단인 소위 ‘periphrasis’가 급속히 발달되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s*-genitive는 of-phrase로 대체되었다. 결국 영어는 synthetic language에서 analytic language로 변모한 것이다.

영어에 아직 남아 있는 굴절어미는 복수를 표시하는 *-(e)s*, 소유격 *'s*, 형용사의 비교급 *-er*와 최상급 *-est* 및 동사 삼인칭 단수 현재형 *-(e)s*다.<sup>10</sup>

### Ⅲ. 형태(Accidence)의 간소화 원인

많은 학자들이 영어의 형태가 간소화된 원인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어째서 굴절언어였던 OE가 분석언어로 변모했느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못되고 있다.

G.M. Trevelyan은 ME에서 영어의 Accidence가 간소화된 것은 Norman Conquest 이후 두 세기 이상이나 영어가 무식한 농부들만의 전용어로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As a result of Hastings, the Anglo-Saxon tongue, the speech of Alfred and Bede, was exiled from hall and bower, from court and cloister, and was despised as a peasants' jargon, the talk of ignorant serfs. It ceased almost, though not quite, to be a written language. The learned and the pedantic lost all interest in its form, for the clergy talked Latin and the gentry talked French. Now when a language is seldom written and is not an object of interest to scholars, it quickly adapts itself in the mouths of plain people to the needs and uses of life. This may be either good or evil, according to circumstances. If the grammar

<sup>8</sup> Baugh, *op. cit.*, p. 195.

<sup>9</sup> *An Elementary Middle English Grammar* (O.U.P., 1952), p. 71.

<sup>10</sup> *To be* (I am, you are, 및 he is)가 유일한 예외일 뿐이다.

is clumsy and ungraceful, it can be altered much more easily when there are no grammarians to protest. And so it fell out in England. During the three centuries when our native language was a peasants' dialect, it lost its clumsy inflections and elaborate genders, and acquired the grace, suppleness and adaptability which are among its chief merits.<sup>11</sup>

이상의 Trevelyan의 말은 첫째 혼잡한 영어의 굴절이 무식한 대중계급에 의해 오랫동안 전용되었기 때문이라고만 한 점과, 둘째 그의 주장이 어학적 혹은 어떤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것이 못된, 순전히 역사가의 상상력에 의존해 있다는 점 때문에 얼핏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편 교육이 없는 농부들이 OE의 여러가지 복잡다단한 굴절을 귀찮게 여기고 또 거기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것을 생각할 때 Trevelyan이 제시한 원인은 적어도 원인 중의 하나는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Albert C. Baugh는 다음과 같이 노만 정복과 농부들이 정확히 어떤 면에서 그리고 어떻게 ME에 영향을 끼쳤는가를 단정적인 말로 설명하고 있다.

...the decay of inflections and the confusion of forms that constitute the really significant development in Middle English grammar are the result of the Norman Conquest only in so far as that event brought about conditions favourable to such changes. By making English the language mainly of uneducated people the Norman Conquest made it easier for grammatical changes to go forward unchecked. Beyond this it is not to be considered a factor in them.<sup>12</sup>

이어서 Baugh는 「무릇 한 언어는 다른 언어에서 단어를 빌려오기는 하지만 문법을 빌려 오지는 않는다」<sup>13</sup>면서 노만 정복이후 영국에서 official language가 된 불어는 오직 간접적으로 밖에는 영어의 문법구조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었다고 했다.

결국, 영어가 다른 어느것보다 노만 정복으로 더 큰 영향을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노만 정복 그 자체가 영어 형태의 간소화를 초래시킨 것은 결코 아닌 것이다. 노만정복 이전에도 형태 간소화 경향이 있어 오던 것이 다만 노만 정복으로 인해서 그것이 촉진되었을 따름이었다.

Henry Bradley도 "...about those years the process of change was going on somewhat more rapidly than usual..."<sup>14</sup> 정도로 밖에는 ME에 대한 노만 정복의 영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morphological changes의 원인으로서는 다음 두가지를 들고 있다. 즉 하나는 phonetic change와 또 하나는 언어가 서로 다른 국민들이, 또 방언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혼합된 사회.<sup>15</sup>

<sup>11</sup> *History of England* (Longmans, Green & Co., 1952), pp. 131-2.

<sup>12</sup> *Op. cit.*, p. 205.

<sup>13</sup> *Loc. cit.*

<sup>14</sup> *Op. cit.*, p. 8.

<sup>15</sup> *Cf. ibid.*, pp. 19-32.

Otto Jespersen은 또 그 간소화 원인을 “the manifold incongruities of the system”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Chief among the general causes of the decay of the Old English apparatus of declensions and conjugations must be reckoned the manifold incongruities of the system: if the same vowel did not everywhere denote the same shade of meaning, speakers would naturally tend to indulge in the universal inclination to pronounce weak syllables indistinctly (and the OE inflexional endings were all unstressed): thus *a, i, u* of the endings were levelled in the one colourless vowel *e*, and this could even after some time be dropped altogether in most cases.<sup>16</sup>

이상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원인들 이외에 쉽게 우리가 지적할수 있는 중요한 원인은 stress-shift다. 다시 말하면, 강세(stress 혹은 accent)가 단어의 첫 음절로 이동하게 되자 굴절어미는 희미하고 모호하게 발음되게 되어 결국에 가서는 굴절 어미가 아주 없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이상을 요약하여 결론을 내린다면, OE의 굴절이 없어지고 OE의 Accidence가 간소화된 것은 다음 다섯가지 원인 때문이었다.

1. 단어의 강세점의 이동.
2. 원래 진행되던 간소화 과정이 Norman Conquest에 의해 촉진된 점.
3. 영어가 두세기 이상이나 무식한 농부들만의 전용어로 되었던 점.
4.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국민들과 서로 다른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혼합해서 생활하게 되었던 점.
5. 굴절체제가 불합리하고 불규칙적인 점이 많아서 준수하기 어려웠던 점.

<sup>16</sup> *Op. cit.*, p. 169.